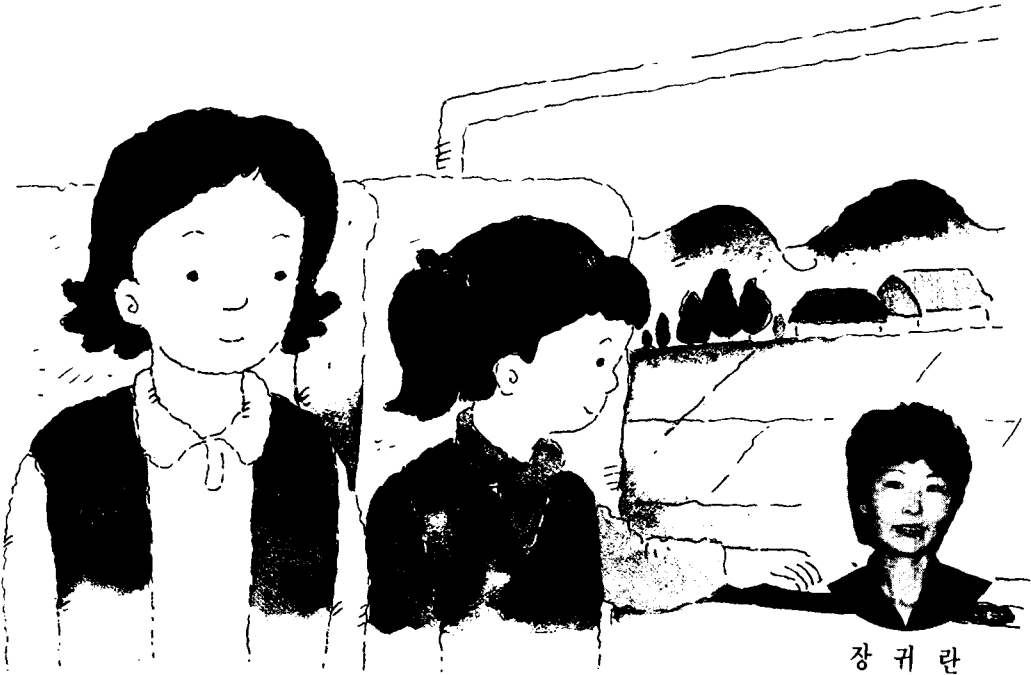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장 귀 란

막고 푸른 5월의 하늘을
이 고 한창 신록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산들이
뭉클처럼 고속버스 차창 밖으로
흐른다. 그리고, 시원스런 들녘을
배경으로 바쁘게 일손을 놀리는
농부들과 풀을 뜯는 송아지도
그림처럼 흐른다.

“엄마, 엄마. 저것 봐!
송아지야. 참 귀엽지?”

국민학교 3학년에 다니는 막내
딸이 차창 밖을 가리키며
호들갑스럽게 소리친다.

서울에서 태어나 혼잡한 환경
속에서만 살아온 딸아이에게
푸르고 시원한 농촌 풍경이
무척이나 신기하고 정답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딸아이와는 반대로
K시가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져 간다.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앉은
그이를 돌아 보았다. 그이 역시
마음이 무거운듯 눈을 꼭 감은채
의자에 깊이 묻혀 있었다.

지금 우리는 그이의 외사촌
여동생 결혼식에 가는 길이다.
마침 5월의 연휴까지 겹치는데다
경사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니
마냥 즐거운 여행 기분이 돼야 할
일이건만 이토록 가슴이 무거운
건 K시에는 씻을 수 없는 아픈
추억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회한에 젖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벌써 4년 전 일이다. 그러나

엇그제 일처럼 선명하게 뇌리를
스쳐가는 그 비극, 그 화재만
아니었더라면 그이의 여동생,
그러니까 나에게서는 시누이가
되는 그 상냥하고 생활력 강한
아가씨도 면사포를 썼을 것이고
지금쯤 알뜰한 주부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텐데. 그리고 그이의
가슴에 그토록 아픈 상처를
남기지 않았을텐데.

그이가 여동생의 일에 남달리
가슴 아파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이의 고향은 K시다. 그러나
그이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부친의 사망으로 진학이
어려워지자 1년을 놀던 끝에
서울에 사는 친척만을 믿고

무작정 상경하여 고향으로 야간학교에 다녔다. 그이가 집을 떠날 당시 철없는 꼬마였던 여동생은 오빠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데 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다니며 천덕꾸러기처럼 자랐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성격이 쾌활하고 상냥했던 시누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양품점 점원으로 취직하면서부터 손님들에게 무척 귀여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이가 군대생활을 할 때나 미처 취직을 못해 서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이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입원했을 때, 아들보다 더 큰 위안과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상냥하면서도 생활력이 강했던 시누이는 수년간의 점원생활 끝에 조그만 월세 점포를 얻어 자기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내가 두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쯤 점포를 전세내어 이전할 만큼 착실한 성장을 계속했다. 한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점포일에 소홀한 적이 있긴 했지만, 시누이는 다시 점포에 정성을 들여 약혼을 하던 해엔 살림방까지 달린 좀 더 큰 전세집으로 점포를 옮기고 취급하는 물품도 더욱 다양하게 갖추고 점원까지 둘 정도로 번창했다.

그해. 좋은 사람이 있으니 오빠가 와서 한번 봐달라는 시누이의 연락을 받고 그이는 무척 기쁜 표정을 지었다. 혼기가

“왜요

나는 늘상 그렇게 해왔는데도 별 일 없었는데요.”

시누이는 갑자기 달라진 내 표정이 도리어 이해할 수 없다는 투였다.

아, 아가씨는 화재의 무서움을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늦어지는 여동생을 누구보다 걱정하던 터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K시를 다녀온 후에도 그이는 매우 흡족한 기색이었다.

그런데 시누이의 약혼식 날 나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만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혼식은 양가의 몇 분 어른들만 참석한 가운데 한식집에서 점심을 함께 들면서 간소하게 끝났고, 군대생활을 마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한 지 얼마되지 않는다는 약혼자도 무척 성실해 보여 별로 탓할 데가 없었다. 문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벌어졌다. 함께 K시로 내려왔던 그이는 다음 날의 출근 관례로 밤차로 상경하고 시누이의 간곡한 청에 못이겨 나는 하루밤 묵어 가기로 했다.

우리 두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혼을 한 탓일까, 시누이는 마냥 즐거운 기분이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찌개를 끓이던

곤로불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마침 내가 손에 음식을 만지던 참이라 시누이가 석유를 붓게 되었는데 곤로불을 끄지도 않은채 그냥 석유주입구 뚜껑을 열고 석유를 붓는 게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 얼른 가로막았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석유곤로를 끄지않은 채 석유를 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하고 불장난하는 어린애에게 주의를 주듯 따끔한 어투로 말했다.

“왜요? 나는 늘상 그렇게 해왔는데도 별 일 없었는데요.” 시누이는 갑자기 달라진 내 표정이 도리어 이해할 수 없다는 투였다.

아, 아가씨는 화재의 무서움을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잘못 버린 성냥불 한 개피, 잘못 켜둔 촛불 한 자루가 행복을 태워 버릴 수도 있고,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과열된 석유곤로의 불을 끄지 않은 채 석유를 붓다 잘못 흘리기라도 하면 석유 곤로가 폭탄처럼 폭발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보통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리라 싶었다. 저녁을 먹고나서 차분히 불의 무서움을 들려주어 시누이가 다시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생각했다. 사실 나는 불에 대해서는 남달리 조심을 하는 편이며, 남이 불을 함부로 다루는 것조차 그대로 넘겨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다. 거기엔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는 큰 불이 난 적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는 흔히 벋단이나 마른 나뭇잎을 지퍼 밤을 짓곤 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나뭇잎을 아궁이에 밀어 넣다말고 대문에서 누가 찾자 그대로 나갔던 모양이다. 얼마를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부엌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더라는 것이다. 불이 마른 나뭇잎 더미에 옮겨 붙은 것이다. 어머니는 부랴부랴 달려들어 불을 끄려고 했지만 마른 나뭇잎이며 초가지붕 등이 오죽 잘 타겠는가. 마을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불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집 한 채를 거의 다 태우고야 불길은 잡혔다. 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때의 놀람과 부상으로 어머니는 폐인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자라서 불을 다룰 때마다 문득문득 어머니를 생각하곤 했는데 불에 대해 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게된 것은 친구의 불행을 보고나서 부터였다.

나에겐 어린 시절부터 무척 다정하게 지낸 친구 하나가 있다. 여학교도 단짝처럼 함께 어울려 다닌 그 친구네는 마을에서는 가장 잘 사는 축에 들어 무엇하나 부러운 것 없이 자랐고, 결혼도 고등학교 교사와 했는데 남편의 성격이 너그럽고 성실해서

복많은 아이라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한가지 흠이 있었다면 불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아기를 안고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는 아기의 발에 난 제법 큰 화상흉터를 가리키며 남편이 담배를 피우고 버린 성냥개비가 아기의 이불속에 옮겨붙어 일어난 것이라 했다.

그런데도 친구 남편은 불에 대한 경각심을 게을리했던지 마침내 큰 일을 내고 말았다.

그날 친구는 친척 어른의 생신 관계로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게 되었다는데 마침 정전이 되어 친구 남편은 촛불을 켜놓고 책을 보다가 깜박 잠이 들었던가 보다. 그게 탈이었다. 다 타버린 촛불은 책과 벽에 옮겨붙어 큰 불이 되었고, 잠결에 놀라 일어난 친구 남편은 허둥대다가 뛰쳐나왔는데 불현듯 두고나온 아기가 생각나 다시 이야기를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천정이 무너지는 통에 중화상을 입었다.

뜻밖의 이 화재로 아기는 현장에서 질식사하고 친구의 남편은 5일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설마하는 부주의가 불러온 엄청난 비극을 친구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타격이 컸었던가 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불태워 버린 친구는 2년이 넘도록 정신치료를 받아야만 되었다. 다행히 지금은 모 화재보험회사에서 외무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가 남달리 불조심과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열심히 뛰는데 대해 나는 깊은 이해심이 갔다.

아무튼 나는 이러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시누이의 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저 했다. 그런데 막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시누이의 약혼자가 들렸다. 지나는 길에 과일을 좀 사가지고 왔다고 했다. 벌써 친숙한 사이인듯 시누이는 반갑게 맞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늦게 돌아가는 통에 나는 막상 내가 하고 싶던 이야기를 못하고 말았다.

이튿날. 나는 시누이 집을 떠나면서 그래도 그냥 떠나기가



나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한다.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어려서부터 불조심 교육을
철저히 시켜 절대 아름다운
꿈이 불붙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리라.

마음 놓이지 않아 여러 상품들을 둘러보며 거듭 불조심을 강조했고, 결혼후에도 당분간 계속 점포를 운영하겠다니 반일을 위해 화재보험에도 꼭 들어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시누이는 “염려마세요. 이제까지도 아무일 없이 잘해 왔는데 걱정끼칠 일이야 있을라구요.” 하며 가볍게 웃었다.

그러나 이때 좀더 간곡히 설득시키지 못한 것을 뒤늦게 뼈저리게 후회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결혼식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날, K시에 사는 그이 친척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시누이가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태라는 것이었다.

그이와 내가 급히 K시로 내려가 보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시누이의 모습은 형언하기 어렵도록 참혹한 모습이었다. 의사의 말로는 그나마 며칠 지나 보아야 생사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화인은 내가 걱정했던대로 곧로 취급 부주의였다. 나는 가슴을 치도록 후회스러웠다. 시누이도 뒤늦게 정신이 들어 상황을 알았을 때, 불조심에 소홀했던 점과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을 무척이나 후회했다.

그러나 뒤늦게 후회한들 무엇하는가. 결국 이 화재로 시누이는 고생하며 모은 재산과

생명을 모두 잃고 말았다.

“여보, 거의 다 왔으니 내릴 준비를 해요.”

그이가 나를 흔들었다. 눈을 감고 깊이 묻혀 있는 나를 잠들어 있는 걸로 여겼던 모양이다.

K시. 영원히 잊고 싶으면서도 잊을 수 없는 아픈 추억이 서린 도시. 그 도시의 깨끗한 교외 풍경이 우리 아이에게 한껏 기대를 부풀게 하는가 보다.

나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한다.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어려서부터 불조심 교육을 철저히 시켜 절대 아름다운 꿈이 불붙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리라. ☹